

‘코리아 드림’ 찾아 왔건만... 짓밟힌 인권 ‘코리아 악몽’

‘나주 벽돌공장 괴롭힘’ 계기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사례 살펴보니

지난 4월 영암 돼지농가서 6개월 착취 당한 네팔 노동자 극단적 선택
강제노동·폭행·임금체불 되풀이... ‘염전 주 7일 근무’ 구인광고 논란도
외국인 노동자들 고통에도 임시방편 대책만... 실질적 대책 마련 시급

최근 나주시 반남면 벽돌공장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남 지역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과 착취, 인권 침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나주시 외국인노동자 집단괴롭힘 사건을 언급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아만적 인권침해를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24일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나주시 반남면 한 벽돌공장에서는 지게차 작업자가 스리랑카 외국인 노동자 A(31)씨를 벽돌더미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올리는 등 괴롭힘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에는 완도의 한 다시마 양식장에서 일하던 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 노동자 3명이 “일을 못하고 소동이 난다”는 이유로 사업주와 군청에 의해 강제 출국 위기에 처해졌다. 지난 4월 영암의 한 돼지 농가에서는 네팔 국적 노동자가 6개월 넘는 고용주의 폭력과 임금체불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해 8월에는 전남의 한 군 지역에서 결혼이주 배경 여성 가족 초청 베트남 국적 노동자가 딸기밭에서 근무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썼다가 벌목, 어업, 하우스 등 다른 사업장에만 투입되다 임금 체불을 당했다.

지난해 1월 해남군에서는 한국인 브로커가 필리핀 지자체와 MOU를 맺고 한국을 찾은 필리핀 국적 외국인 노동자 2명의 여권·통장을 압수하고 연대보증 요구하고 계약 외 강제노동 등을 강요하는 등 인신매매 피해가 확인돼 국가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됐다.

지난 2023년에는 필리핀 국적 계절 근로자 5명이 완도군 금일읍의 한 어가에서 계절근로자로 일하다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떼이고, 폭언과 폭행을 당해 주한필리핀대사관에 신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장애인 노동력 착취, 속칭 ‘염전 노예’ 문제가 발생했던 신안군에 계절근로자가 배치되면서 논란이 한 차례 더 일기도 했다. 특히 지난 4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신안 태평염전 소금에 대한 수출 인도보류명령을 내리고 외국인 노동 환경에 대한 경고를 내리면서 외국인 노동자 착취 논란이 거세졌다.



지난 15일 나주시 반남면 한 벽돌 공장에서 스리랑카 외국인 노동자를 비닐로 묶어 지게차로 들어올리는 등 괴롭히는 영상이 공개됐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지난해 1월에는 신안군 암태면에 있는 염전에서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염두에 두고 ‘주 7일 근무, 월급 202만원 이상’ 조건에서 일할 노동자를 구한다는 구인광고가 올라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전남도는 지난 4월 ‘외국인 근로자 노동인권 보호 종합대책’까지 내놓았음에도 인권 침해 사고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전남도는 당시 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5개 핵심 분야에 따른 17개 과제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사회적 고립 해소, 고용주 및 근로자 인식 개선, 노동인권 실태 조사, 사회안전망 구축, 지역사회 기반 일상회복지원 등을 약속했지만, 실태 조사 등 실제로 개선 및 실천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지역은 외국인 노동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인권 대책 마련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노동자(E-2, 3, 6, 7, 8, 9, 10, H-2) 수는 2020년 1만7797명, 2021년 1만7057명, 2022년 2만1215명, 2023년 2만6426명, 2024년 2만9756명, 2025년 3월 3만322명으로 집계됐다. 노동단체는 미등록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최대 1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에 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외국인 노동자 관련 진정 건수는 총 6건(2020년 1건, 2021년 2건, 2023년 1건, 2024년 2건)에 그쳤다.

인권단체 등은 외국인 노동자들 가까이에 인권침해를 신고하고 도움을 받을 기관이 없다는 점에서 진정 제기, 신고 등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신고를 하게 되면 행정당국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일을 못 하게 되거나, 사업장에서 쫓겨나는 등 피해를 입을 지 모른다는 생각에 피해를 감내하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험의 이주화’ 중단,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노동허가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인권단체는 주장하고 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관계자는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제도는 바뀌지 않고 전남도, 정부는 임시방편 대책만 반복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노동부는 농공단지 및 계절 외국인 노동자들을 포함한 다양한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대책까지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이주노동자 괴롭힘 나주 벽돌공장 감독 착수

고용노동부 엄정 대응 방침

나주시 반남면 벽돌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벽돌 더미에 묶여 지게차로 들어올려지는 등 인권 침해를 당한 것에 대해 노동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4일 나주시 반남면 한 벽돌공장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의 제보, 과거 신고 사건 이력 분석 등을 통해 주기적인 사업장 기획 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목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추락사 관련 광양제철소·철거업체 압수수색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작업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사 사건과 관련, 전남경찰청이 24일 광주 지방고용노동청과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철거 작업을 한 금속제조업체 등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경찰 등은 30여명을 투입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 철거 대상 구조물이 붕괴하게 된 원인과 철거 계획이 수립됐는지 여부, 불법하도급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압수물을 토대로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철거 업체 관계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치상 등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는 배관 철거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외벽의 대형 배관(덕트)을 밟고 올라가 배관 철거 작업을 하다 배관이 붕괴되면서 12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인근에서 고소작업차 작업대에 탑승해 작업을 지시하던 작업자도 붕괴된 구조물에 머리를 맞았다. 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광주쿠광물류센터 작업자 절반 이상

“업무 중 무더위 노출, 신체 이상 느꼈다”

광주시민모임, 노동환경 실태조사 51% “폭염 휴게시간 연장 못받아”

광주시 광산구 평동산업단지에 들어선 ‘광주쿠광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작업자 절반 이상이 업무 중 무더위에 노출돼 신체 이상을 느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광주쿠광물류센터 노동인권 실태를 위한 광주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동 광주쿠광물류센터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시민모임이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평동 광주쿠광물류센터 노동 177명을 대상으로 폭염기물류센터 노동 실태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조사 결과 응답자 177명 중 59%(105명)는 작업 중 무더위로 어지러움, 두통, 식욕저하 등 신체적 불편함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최근 폭염 기간 동안 근무 환경과 관련해 응답자 중 63%(112명)는 “매우 더워서 힘들었다”고 답했으며, 33%(58명)는 “덥지만 견딜만 했다”고 답했다. 덥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저온 창고가 있

는 신선센터에서 일하는 7명 뿐이었다. 응답자 중 66%(116명)는 에어컨 없이 선풍기만 설치돼 있는 곳에서 일하고 있으며, 3%(6명)는 에어컨도 선풍기도 없는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장소의 온도와 관련, 2%(4명)는 ‘40도 이상’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35~39도에서 근무한다는 응답은 16%(28명), 30~34도에서 일한다는 응답은 45%(80명)를 차지했다. 노동자 중 63.2%(112명)이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응답자 중 50%(89명)는 열음물, 풀조기, 냉점질책 등 폭염 대응 물품 지급이 부족한 편이라고 했다.

무더위가 이어지는데도 휴게 시간조차 추가 보장받지 못했다는 이들도 많았다.

응답자 중 51%(91명)는 폭염 특보에도 평소와 똑같은 휴게시간을 갖고, 휴게시간 연장을 못 받았다고 응답했다.

시민모임 측은 “광주시는 폭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즉각 실태 조사와 관리·감독에 나서 냉방 조치를 실시하고, 정기적인 현장실사단을 구성하는 등 작업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100억 원대 부정대출 해주고

역대 수수료 챙긴 축협 지점장

브로커·감정평가사 등 10명 기소

업(up)계약서, 위조된 통장 사본, 허위 감정 등으로 115억원 규모의 부정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 임직원과 브로커, 감정평가사 등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광주지검은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및행사 등 혐의로 지역 축협 지점장 A(55)씨 등 10명을 기소했다. 이 중 2명은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21~2022년 부동산 개발업자, 건설업자 등과 공모해 매매계약서, 통장사본을 위변조하고, 허위·과다 감정평가를 받는 방식으로 대출 한도를 올려주며 85억원을 부정 대출해주고 대출 차주들로부터 1억 50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골프회 회원권 등 금품을 받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역 축협 부지점장 B(44)씨는 지난 2023년 건설업자 등과 공모해 허위감정을 통해 30억원 부정 대출을 받게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감정평가사 2명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총 8회 허위·과다 감정평가를 발급해 준 혐의(감정평가법 위반)를 받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해를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 | | | | |
|------------------------|------------------------|--------------------------|------------------------|-------------------------|
| 용 산 지 점 062)526-0222~3 | 유 동 지 점 062)512-1984~5 | 유 덕 지 점 062)373-3235~6 | 운암박산지점 062)529-5335~6 |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
| 치 평 지 점 062)381-8212~3 | 동 립 지 점 062)513-8521~3 | 동 운 지 점 062)528-2640~2 | 빛 고을로지점 062)531-1213~5 |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
| 쌍 촌 지 점 062)381-6551~2 | 운 암 지 점 062)527-3295~6 | 배 들 지 점 062)381-1971~2 |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
| 화 정 지 점 062)372-0421~3 | 운 천 지 점 062)371-2772~3 |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 애니로마트등림점 062)511-2901~3 |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